

# 大巡思想의 理想世界

朴昇植\*

## 目次

I. 序論	V. 世界開闢의 必要性和 方法
II. 佛敎의 救援	1. 世界開闢의 必要性
III. 基督敎의 救援	2. 世界開闢의 方法
IV. 地上天國의 意義	VI. 結論

## I. 序論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다. 그래서 인류가 출현한 이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생명을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왔다. 그리고 인간의 생활은 행복한 순간보다는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많았다.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의식주 문제, 질병, 전쟁 등의 생존 자체가 커다란 문제로 고통을 받았으며,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각종 질병과 전쟁, 빈부 격차, 인간 존재 가치에 관한 문제 등으로 고통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인간의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인류는 죽지 않고 어떠한 고통도 없는, 그리고 인간이 생존하는데 최상의 조건을 갖춘 이상세계를 그리워하여 왔다. 인류가 추구해 온 이상향은 상상의 세계로서 한번도 구체적으로 실현된 적은 없으며, 앞으로도 구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

\* 행정학 박사

인간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죽음과 삶 속에서 겪어야만 하는 각종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게 되었다. 인간의 종교적 믿음은 원시시대부터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은 누구나 개체 유지를 위한 본능을 갖고 있으며, 죽음과 같은 정신적·육체적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생명 유지와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갖는다.<sup>1)</sup> 생명 유지와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장 적절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종교이다. 그리하여 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인간의 궁극적 구원에 있다. 인간은 죽음과 생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종교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한다. 죽음과 같은 고통과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적 본능을 갖고 있으며 종교적 존재라고도 한다. 종교에서는 현세의 삶은 유한한 것이며 삶의 범주는 유한성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으며, 현세의 인간은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간 생활의 죽음과 고통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종교의 구원이다. 어떠한 종교에 구원이 없으면, 하나의 종교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한계성, 죽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접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종교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고뇌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종교의 구원은 현실의 인간은 불행한 상태에 있으며, 인간 자신의 노력과 신성한 절대자와의 교류를 통해 궁극적인 최고선(ultimately good state)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sup>2)</sup> 종교에서 구원은 현실세계에서의 고통과 비참한 상태에서 절대자를 숭상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면 완전한 최고의 행복한 생활을 하며 영생을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종교적 구원을 통해서 죽음과 현실의 불행한 고통을 극복하고 완전한 세계인 이상세계에서 영원한 사람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은 삶을 동물과 같이 단순하게 생존하는 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매하고 승화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데, 이는 종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종교의 구원은 개인의 노력에

1) 黃善明, 宗敎學概論(서울 : 종로서적, 1982), p. 115.

2) N. Smart, "Soteriology",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13(1987), p.418.

의한 구원과 신격체(神格體)에 의한 대중의 구원의 형태를 갖는다.

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구원인 地上天國建設 - 世界開闢을 연구한 것이다. 地上天國建設 - 世界開闢은 대순사상의 궁극적인 최고 목적이다. 대순사상의 목적의 하나인 無自欺 - 精神開闢과 地上神仙實現 - 人間改造는 본 논총에서 이미 연구한 바 있다.

地上天國은 대순사상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세계이다.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이상세계가 있는 것과 같이 대순사상의 이상세계는 지상천국이다. 그리고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계개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개벽은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과정이고 방법이다. 세계개벽을 통하여 지상천국은 건설될 수 있다.

地上天國建設-世界開闢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 불교와 기독교의 구원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이해하는 것은 지상천국의 의미와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대순사상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지상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세계개벽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 佛敎의 救援

불교를 창시한 석가는 인간은 끊임없는 번뇌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였다. 석가는 고행의 수도를 통해 대각한 후 처음 설법을 하였는데, 이 설법을 초전법륜(初轉法輪)이라 한다. 석가가 성도하여 깨달은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4성체설(四聖諦說), 4법인(四法印), 8정도(八正道), 연기(緣起) 등을 들고 있는데, 이것들이 원시 불교의 교리이다.

사성체(四聖諦)는 고통(苦諦), 집(集諦), 멸(滅諦), 도(道諦)로서 '신성한 진리'라고 한다.<sup>3)</sup> 사성체는 고통, 고통의 근원,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로서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이다. 인간 생활의 고통은 生老病死의 4苦

3) 李載昌·덕정·윌포라 라후라 外, 現代社會와 佛敎(서울: 한길사, 1981), pp. 29~31

와, 이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지는 고통(愛別離苦), 미운 사람과 만나는 고통(怨憎會苦),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所求不得苦), 5온<sup>4)</sup>에 집착하는 고통 등 4가지를 더하여 8품로 표현하기도 한다. 인생에는 즐거움도 있으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병과 죽음의 고통도 있다.

인간은 자연현상으로서의 생로병사가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생로병사가 고통의 원인이라 한다. 모든 인간의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재 자체라는 것이다. 이것이 고통의 진리인 고체(苦諦)이다. 고통의 원인은 인간이 탐욕과 시기, 질투, 어리석음 등 그릇된 욕망을 갖는데 있다. 인간의 고통은 충족할 수 없는 욕망과, 불만을 쌓아 가는 욕망에 원인이 있다. 인간의 욕망은 감각적인 쾌락을 찾는 정욕(情欲), 영생의 욕망, 생존의 단절을 바라는 욕망 등이라 한다. 만족을 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이 불행하게 하는 번뇌의 주요한 원인이라 한다.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어리석음에 있는데, 이를 무명(無明)이라고 한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탐욕과 시기, 질투, 분노 등은 인간이 어리석은 데에서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지혜가 모자라서 욕망이 생기고, 충족할 수 없는 욕망에 의해 인간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만족을 모르는 욕망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멸체(滅諦)인데, 그 의미는 고통을 멸하는 진리라는 뜻이다. 멸체는 번뇌의 사슬을 끊었다는 것으로, 멸체가 된 상태를 니르바나(Nirvana), 즉 열반(涅槃)이라 한다.

도체(道諦)는 고통을 멸하는 길로서, 이를 8정도(八正道)라 한다. 8정도는 인간의 고통을 없애는 여덟 가지의 도를 말한다. 팔정도는 正見, 正思, 正語, 正業, 正命, 正念, 正精進, 正定을 뜻한다. 正見은 사물을 편견을 갖지 않고 사실대로 보는 것(如實知見)인데, 正見을 통해 인간은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 올바른 생각(正思)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말

4) 오온이란 인간의 몸과 마음을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개념이다. 오온은 색온(色蘊), 수온(受蘊), 상온(想蘊), 행온(行蘊), 식온(識蘊)을 말한다. 蘊(skandha)은 모임이라는 의미이다. 색은 빛깔이나 모양이 있는 것으로, 특히 육체를 가리키며, 受는 감수(感受)로 苦受, 樂受, 不苦不樂受 등을 뜻한다. 想은 表象을 뜻하며, 行은 형성하는 힘을 말하며, 識은 인식이나 가치판단의 작용을 가리킨다. 인간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도 끊임없이 변화하여 무상하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은 집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平川 彰, 印度佛教史 : 上卷(春秋社, 1967), 이호근 옮김, 인도불교의 역사(서울 : 민족사, 1994), p. 65

(正語), 올바른 업(正業), 올바른 생활수단(正命), 올바른 신념(正念), 올바른 노력(正精進), 올바른 자기 몰입(正定)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즉 正見에 의해 도리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되며; 마음이 바르게 통일(正定)되어야 대각(大覺)의 경지인 해탈과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팔정도는 중도(中道)라고도 한다. 욕망에 의한 탐욕적 생활은 천한 생활이고, 관능적인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생활은 발전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행도 괴롭기 때문에 깨닫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석가는 쾌락을 추구하거나 육체를 확대하는 고행은 극단적인 것이므로 중도를 택하여야 깨달음을 얻는데 효과적이라 한다. 인간이 쾌락만을 추구하면 타락에 빠져 정신적인 향상을 기할 수 없다고 한다. 지나친 고행은 강한 의지와 집중적인 노력이 따라야 하는데, 그 노력은 고귀하지만 육체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지나친 쾌락과 육체적 고통을 탈피하여 중도를 발견해 가는 지혜가 팔정도의 正이다. 인간은 팔정도를 실행하는 데에서 열반이라는 이상적 경지를 체득할 수 있다고 한다.

팔정도를 요약해서 계(戒), 정(定), 혜(慧)라고 하는데, 이를 삼학(三學)이라 한다. 삼학은 초기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 수행 방법이었다. 인간고(人間苦)의 가장 주요한 원인을 탐(貪), 진(瞋), 치(癡) 세가지를 드는데, 이를 삼독(三毒), 또는 삼독심(三毒心)이라 한다. 탐(貪)이란 탐내는 마음으로 탐내지 않으려는 성질을 방해하여, 고(苦)를 낳는다고 한다. 인간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욕심을 내거나,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려는 것이 탐심(貪心)이다. 진(瞋)은 성내는 마음으로 증오하는 성질을 가져서, 성내지 않으려는 마음을 방해하고, 불안과 악행에 의한 업을 이룬다. 치(癡)란 어리석은 마음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치를 잘 알지 못하여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부처의 성품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이치에 밝지 못한 것을 어리석은 마음을 말한다. 탐, 진, 치란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욕심부리는 마음 때문에 노여워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그리하여 치심(癡心)을 버리게 되면, 모든 삼독

심을 완전히 버리는 해탈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삼독에 의해 생기는 고통의 해결은 삼학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한다. 즉 팔정도를 행하는 계(戒), 정(定), 혜(慧)의 실행에 의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계(戒)는 윤리적 생활태도로서 산 생명을 죽이는 것, 도독질, 부정한 성관계, 거짓말, 음주 등의 다섯가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의지를 말한다. 정(定)이란 혼란한 마음을 정화하고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수련방법이다. 정은 외부를 지향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아실현의 수행이다. 혜(慧)는 반야지(般若智)로서 사물과 현상세계, 인생의 실체를 바로 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연기((緣起)란 인연(因緣)이라고도 하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서로 의존하는 데에서 생기는 상관관계를 말한다.緣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해 자기가 성립한다는 의미로,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겨야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으며, 이것이 멀하면 저것도 멀한다”는 것이다. 타자에 의존한다는 것이 자기의 존재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타불이(自他不二)라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세계는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 받아야 성립하고 유지되는데, 이는 근원적인 법이라는 것이다. 세계는 이러한 수많은緣에 의해 법이 성립한다고 한다.<sup>5)</sup> 그리하여 법이 생기게 하는 연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다. 연과 법과의 관계는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고, 공간적으로는 우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우주의 존재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緣起에 의한 연속의 세계라 할 수 있는데, 이로서 법계(法界)가 성립한다.

이것을 삼법인(三法印)이라 한다. 삼법인은 제법무아(諸法無我), 제행무상(諸行無常), 일체행고(一切行苦)를 말한다. 諸行無常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자기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변화해 간다는 의미이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멸(生滅)하므로, 모든 행하는 일들은 무상(無常)하다는 것이다. 중생이 영원하지 않은 현상에 지나치게 애착을 갖는 것은 미혹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제행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으로

5) 불교에서 말하는 법의 語義는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로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가 파생되어, 법은 인륜적인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 관례, 의무, 사회질서 등과 나아가 善, 德, 眞理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上揭書, p. 66

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한다.

諸法無我是 법은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영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세계는 緣起에 의해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사회도 법 자체라 할 수 있다. 연기의 법을 알면 他로부터 단절된 고정적인 자아 개념은 없어진다. 그러나 중생들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으며, 자기의 소유(我所) 관념이 강하여 집착을 하게 된다고 한다. 중생은 타인들과 단절된 자아라는 생각을 갖고 이기적이며 욕망에 의한 타인에 대한 질투, 소유물에 대한 탐욕 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아에 의한 집착은 허망한 것이고, 諸法이 무아라는 것을 인식하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한다.

一切行苦는 인간이 제행무상하고 제법무아한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괴롭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無常한 것인데 영속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無我인데 내가 있다고 집착하는 데에서 인간의 고통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無常과 無我를 깨달으면 고통과 슬픔이 없어지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슬픔과 생로병사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열반의 상태가 되려면 모든 세상과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교의 구원은 스스로 자각하여 해탈을 하는 것이다. 해탈은 부처가 되는 것을 말한다. 부처는 '깨달은 자'란 뜻으로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이다. 부처는 석가모니, 석존(釋尊) 또는 시타르타, 불타, 부처라고도 하는데, 이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한 해탈한 사람이란 뜻으로 완전한 구원을 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불교는 인간에 내재해 있는 불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수행이다.

불성을 깨달아 열반에 이르는 것이 불교의 구원이다. 열반은 고통이 완전하고 영원한 소멸을 의미한다. 열반은 사회와의 모든 관계를 절연하고, 세상의 모든 욕망과 행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악행(惡行)이나 미움을 버리는 것은 물론, 선행(善行)이나 사랑도 철저히 배제하여야 한다. 모든 세속의 인연과 행위를 버려야 원인이 되고 결

과로서 윤회되는 연속으로부터 해탈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6)</sup> 그러나 현세를 살아가는 중생들이 이러한 열반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행을 하는 스님들에게서도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Ⅲ. 基督教의 救援

기독교에서 구원은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구원은 생명을 영원히 하고 싶다는 소망에서 비롯되었다. 성서적 사상은 창조를 하나님의 첫 역사적 행위로 보고,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위대성은 생명에 있다고 한다. 생명은 본질상 하나님의 선물이며,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새롭게 부여하는 장소이다. 생명을 영위하는 삶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권을 역사 안에서 발전시켜 나갈 과업으로 인식하지만 미래와 관련 지어 보면 미결상태로 있다. 역사는 하나님이 선사하는 자유와 인간의 선사 받는 자유 사이에서 동반자적 성격을 갖는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인간이 죽지 않고 몸과 영혼의 전인적(全人的)인 부활로 영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은 생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누구나 죽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생명의 한계성을 벗어나서 질병과 죽음 등의 고통이 전혀 없으며, 영생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을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현세에서 누리는 육체적인 생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이를 천국의 생명이라 한다.

기독교에서는 현세의 인간이 겪는 갖가지 고통과 죽음은 인간의 원죄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원래 인간은 창조주의 모습과 인격과 같이 창조되어서, 어떠한 괴로움이 없었는데, 인간이 창조주의 섭리를 거역함으로써 죽음과 많은 고통이 생겨났으며, 그 후손인 인간들이 괴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기독교에서 죽음은 죄와 별로 이해한다. 구약성서에는 하나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았는데, 악마의 시기로 인한 아담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악이며, 죽음

6) 이광수, “초기 불교에서의 구원관과 변천”, 종교문화연구원 편, 구원이란 무엇인가(서울 : 도서출판 窓, 1993), p.18.



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인간들이 고통을 겪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살려면 창조주를 영접하고 그 섭리에 따라야 한다. 인간이 영생을 하는 천국에서 살수 있다는 기독교의 구원은 종말론(eschatologie)에서 시작된다. 기독교는 인류와 세계 전체의 종말과 완성을 종말론에서 전개한다. 기독교의 종말론과 구원은 일종의 세계완성인데, 세계 완성에 관한 신학적 연구에서 종말의 이해는 다양하다.<sup>7)</sup>

종말론은 개인의 죽음과 세계 전체가 완성되는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개인은 죽음-심판-천당과 지옥과 연옥의 과정을 거치고, 세계의 완성은 예수의 재림(再臨), 사자부활(死者復活), 공심판(公審判) 등 세상의 종말을 밝힌다. 그리하여 모든 역사는 본질적으로 생명을 위한 하느님의 신의에서 시작되고, 또 거기서 끝나므로 역사의 목표인 마지막 날은 역사의 단절, 끝이 아니라 완성의 의미를 갖는다. 역사의 완성은 역사의 최후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무한히 계속될 하느님과 인간의 부단한 상호작용이라 볼 수 있다. 인간은 세계의 최후를 알고자 하는 대신에 온전히 자유롭게 마음을 열고 인간과 세계의 구원의 미래를 희망해야 한다. 역사의 미래 완성을 고대하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자세는 희망이며, 이 희망은 현세를 위한 의무이며 과업이며, 계율을 실천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기독교에서 죽음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숙명으로서 누구나 맞아야 하며, 온 세상이 가야할 길이며, 스스로 맞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처해야 한다.<sup>8)</sup> 죽음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한 것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태로서, 사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기독교에서 죽음은 생명을 주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라도 앗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인간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생명을 주신 하느님의 은총을 얻어야 한다. 하느님의 권능을 믿는 신앙은 불사불멸의 사상으로 전개된다.<sup>9)</sup> 그러므로 인간은

7) 최혜영,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본 인간과 세계의 완성”, 종교문화연구원 편, 구원이란 무엇인가(서울 : 도서출판窓, 1993), pp.440-450.

8) 상계논문, p.428.

9) 상계논문, p.430.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여,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려 노력해야만 한다.

구약성서의 계시는 인간을 죽음의 지배에서 구원하는 것은 하느님의 궁극적 승리라 한다.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만들지 않은 죽음을 영원히 사라지고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명부에서 잠자던 의인들은 부활하여 영생하게 되며, 악인들은 명부의 영원한 번을 속에 살게 될 것이라 한다. 따라서 기독교에서의 인간의 죽음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영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한편 신약성서에서 구원은 예수에 중점을 둔다. 이 세상에 현세한 예수의 죽음은 개인과 인류 전체의 구원으로 이어진다. 예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신봉하고 따른 하느님과 다른 하느님을 제시하였고, 유대교의 율법과는 다른 설교를 하여 단죄되었고 죽었으며 부활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 실존의 새로운 가능성과 영생을 증명하였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나라에 헌신한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은 인간의 허약함과 무의미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여 진정한 하느님의 권능을 입증하여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하였다. 예수의 부활은 불의를 척결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자로서 신화된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존재와 소명이 종말론적으로 표현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이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부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현재를 살수 있게 되었다. 인간들이 현실에서 선하게 하느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하며, 이러한 삶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이상적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종말을 통한 하느님의 나라는 절대 신비의 세계이며, 죽었어도 부활하는 영생의 구원에 관한 믿음을 갖게 한다.

기독교에서 예수의 재림, 육신의 부활, 최후 심판, 최후에 공개될 하느님의 나라는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다. 하느님 나라에서는 창조물 전체가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실낙원(失樂園)을 회복하는 것으로

로 최초로 하느님이 만든 세계가 되는 것이다.

## IV. 地上天國의 意義

대순사상에서 지향하는 최고의 이상세계인 지상천국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지상천국은 선경, 후천선경, 지상선경, 그리고 낙원, 후천세계, 진경, 도통진경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를 모두 함축한 것이 지상천국이라 할 수 있다. 지상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첫째, 선경과 진경은 동의어로 볼 수 있다. 선경은 신선이 살고 있는 곳이란 의미이다. 대순사상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영생한다는 신선이라 할 수 있다. 신선이란 생존한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로 변화한다는 의미로서 지상신선이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상신선은 도를 닦아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완전한 도덕성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선경은 곧 신선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현실세계를 선경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지상선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둘째, 지상천국은 후천, 또는 후천세계라고도 한다. 대순사상은 인류사를 선천세계와 후천세계로 구분하고 있다. 선천세계는 인류가 출현하여 선천개벽이 되어 이루어진 현실세계를 말하고, 후천세계는 후천개벽이 이루어져 새로운 이상세계가 실현되는 시대를 말한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는 선천세계이고, 후천세계는 새로운 개벽이 이루어져 나타나는 지상천국이 실현된 세계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선천세계는 상극원리가 지배하여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천지가 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참혹하게 되었다<sup>10)</sup>고 한다. 선천세계가 참혹하게 된 것은 음양의 부조화와 상극법칙에 의해 인간과 세계가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극원리는 음양이 각기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부정하여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이다. 선천세계는 억음존양(抑陰尊陽)에 의한 음양의 부조화

10) 典經, 공사 제1장 3절, p. 98.

와 불균형으로 원한이 가득 차서 각종 재화가 빈발하고 인간사회는 불신과 불안이 증폭되어 원한이 쌓여 있다. 상극법칙에 의해 인간과 만물은 약육강식으로 원한이 쌓여 있으며, 천기(天氣)가 고르지 못하여 재해와 재앙이 발생하고, 질병이 생겨서 우주 만물이 진멸의 위기에 있다고 한다. 우주 만물이 진멸의 상황에 처한 선천세계를 진정한 개혁을 통해 구현되는 이상세계가 후천세계로서 지상천국이 실현된다. 그리하여 전경에서는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혁하고 후천선경(後天仙境)을 열어 고해에 빠진 증생을 널리 건지려하노라”<sup>11)</sup>하였다.

셋째, 지상천국은 낙원으로도 표현하고 있다. 낙원이란 자의대로 인간과 만물이 생존하는데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곳을 말한다. 이에 대해 전경에서는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sup>12)</sup> 한다. 낙원이란 후천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곳이란 의미이다. 낙원은 기독교에서도 이상세계로 표현하고 있다. 기독교에서 인간의 원죄에 의해 죽음과 고통이 나타난 현실을 실낙원(失樂園)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하느님이 창조한 낙원을 잃어 버렸다는 표현이다. 기독교에서의 낙원도 인간과 만물이 생존하는데 최상의 상태라는 의미로 이상향을 뜻한다.

넷째, 지상천국은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실현되는 세상이라 할 수 있다. 전경에는 “...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 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sup>13)</sup>고 하였다. 무극(無極)이란 극단(極端)이 없다는 뜻으로 어떠한 하나의 이념과 가치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이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종합하여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지상천국은 무극으로 환원하는 원시반본의 세계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지상천국은 도통진경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지상천국을 가장 대 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도통진경이다. 대순사상을 가장 함축한 것은 중

11) 典經, 예시 17절, p.314.

12) 典經, 공사, 제1장 2절, p.98.

13) 전경, 예시 17절, p.315.

지(宗旨)인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이다. 도통진경이란 대순사상의 최종 목적이며,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만 할 이상사회로서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이 온전히 구현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도통진경은 도통과 진경의 합성어로서 각각의 의미를 통합한 것이다. 도통(道通)이란 모든 사물과 사람에게서 각기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치가 있는데, 이것을 도(道)라고 하고 도를 환히 꿰뚫어 알게 되는 것을 뜻한다. 모든 사람들이 우주의 모든 이치를 환히 알기 때문에 밝고 바르며 투명한 세상이 되어 어떠한 부정(不正)과 불의(不義)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sup>14)</sup> 도통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도가 상통하여 조화를 이루어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도는 天道, 地道, 神道, 人道の 주체인 천지와 신, 그리고 인간이 막힘이 없이 와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sup>15)</sup> 도통이란 인간이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나 이치를 통달하고, 최고의 인격을 갖추어 와전한 도덕적 생활을 하며, 신이나 신선과 같은 존재로서 새로운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6)</sup>

진경(眞境)이란 자의와 같이 일시적이고 가식적(假飾的)인 현상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되며 진정으로 바른 것을 말한다. 경(境)은 하나의 세계를 말하고 이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도통을 이룩한 뒤에 맞이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뜻한다.<sup>17)</sup> 즉 진경은 지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참다운 경지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도통진경은 진리인 도(道)가 우주에 완전히 통해서 인간이 바라는 참다운 진실한 이상세계가 실현되는 상태를 말한다. 음과 양이 정음정양(正陰正陽)으로 음양합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신명과 인간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신인조화가 실현되고, 신명계와 인간사회에 쌓인 모든 원한이 해소되고 서로 잘되게 도와주는 해원상생이 구현되는 것이 도통진경이다.

도통진경에 관한 표현으로는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14) 鄭大珍, “道通眞境의 理解”, 大巡思想論叢, 제5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p.3.

15) 拙稿, “道通 眞境의 宗教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제5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p.551.

16) 上揭論文, pp.550-556.

17) 鄭大珍, 前揭論文, p.3.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sup>18)</sup>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도통진경의 세계는 (1)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전개되고, (2) 온전한 법리에 따라 세상이 다스려져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고, (3) 인간을 괴롭혀 온 각종 질병과 죽음이 없는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세계가 되고, (4) 빈부의 격차가 없어지고 인간이 최고의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으며, (5) 자연 재해로 인한 어려움이 없어지는 지상선경이라는 것이다.

도통진경(道通眞境)으로 표현되는 지상천국은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현세계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세계이다. 지상천국은 도통진경이 이루어져서 세계의 모든 나라와 상극을 원한이 쌓인 인간세상을 이끌어 갈 새로운 진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 세계 각국과 인간 사회, 그리고 종교적 신념체계가 다른 데에서 나타나는 무한 경쟁의 세계가 통일되고 조화를 이루어 이념간에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영원한 참 진리로서의 도(道)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 V. 世界開闢의 方向

대순사상의 목적은 無自欺-精神開闢,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 地上天國建設-世界開闢이다. 목적이 하나의 쌍으로 구성된 것은 전자는 실현하고자 하는 상태이고, 후자는 전자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지상에 인류 역사 이래 추구해 온 이상세계인 천국은 유사 이래 최초인 세계개벽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지상천국은 대순사상의 목적 중에서 최고의 목적으로

18) 전경, 예시, 81절, pp.336-337.

우주와 인간사회의 구성 원리와 생활방식이 새롭게 변화되는 세계개벽에 의해서 건설될 수 있다. 지상천국은 저절로 건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개벽이라는 대 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 개벽이란

여기서는 세계개벽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과 실현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 세계개벽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에 의해 세계개벽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등에 관하여 논구해 보고자 한다.

## 1. 世界開闢의 必要性

세계개벽은 현실세계인 선천세계가 진멸의 위기에 처한 것을 구원하고자 하는 대순사상의 종교적 공사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이제 천하 참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 라 진단하고 있다.<sup>19)</sup> 진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데에도 인간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탄한다. 사실 우리 인간 사회의 각종 문제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인륜을 저버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리를 망각한 데에서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인류와 만물이 모두 멸망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계개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류가 진멸의 위기에 처한 것은 서양의 물질문명에도 원인이 있다고 한다. 서양의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자연을 정복하고 천리(天理)를 망각하여 많은 죄악을 저질렀고, 나아가서는 신도(神道)의 권위마저 떨어뜨렸다고 한다. 그리하여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상실되어 삼계(天地人)가 혼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20)</sup> 인류가 고도로 발달시킨 물질문명이 물질적 풍요는 가져왔으나,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파괴, 엄청난 재앙의 빈발, 그리고 인간성의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환경론자들은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세계 각 종족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화와

19) 전경, 교법 제1장 1절, p. 221.

20) 전경, 교운 제1장 9절, p. 155.

사상으로 많은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전경에서는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과 전승(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므로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sup>21)</sup> 라 하고 있다. 세계의 각 종족들 간의 이념과 문화, 그리고 종교적 갈등은 인류를 멸망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의 개발과 전쟁의 위협에 처해 있다.

## 2. 世界開闢의 方向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세계개벽은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는 대순사상의 첫번째 목적인 無自欺-精神開闢과 두 번째 목적인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가 선행되어야 한다.<sup>22)</sup> 그리고 증산이 재세시에 행한 천지공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천지개벽의 실현 방향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인간이 먼저 정신개벽이 이루어져 무자기(無自欺)를 실현하여야 세계개벽이 가능하다. 무자기는 인간이 인격을 완성하여 본성인 양심에 따라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정신개벽은 무자기를 실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인간사회를 안정시키며, 후천세계를 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참다운 인간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현재 인간들은 양심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기는 하지만, 邪心대로 사는 사람에 비해 손해나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인 양심을 따르는 無自欺를 실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사욕에 의한 행동, 무자기를 행하지 않는 데에서 인간사회는 극도로 혼란하고 불안하며 각종 죄악이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는 세계개벽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우선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여 윤리적으로 성숙한 인격적 생활을 하여야 한다.

21) 전경, 교법, 제3장 23절, p.254.

22) 대순사상의 목적인 無自欺-精神開闢과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에 관해서는 拙稿, “無自欺-精神開闢에 관한 研究”, 大巡思想論叢, 제13집(2002), “大巡思想의 人間改造”, 大巡思想論叢, 제14집(2002), 그리고 본 논총 제13집과 제14집에 수록된 論文 參照.



둘째,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가 이루어져야 지상천국은 가능하다. 지상신선은 자의와 같이 인간이 현재와 같이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영생하는 신선이 되는 것이다. 신선은 신과 같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無不通知),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無所不能)의 경지에 이른 존재를 말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은 진리의 표준이며, 인간은 진리에 합치될 수 있는 존재라 가정하고 있는데,<sup>23)</sup> 인간이 진리에 합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지상신선이다. 즉 신선은 신과 같은 존재로서 우주 만물의 생성원리인 음양합덕을 완전히 깨닫고, 신과 인간이 상합할 수 있는 신인조화를 실현하고, 신명계와 인간사회에 쌓여 온 원한을 완전히 해소하고 남을 도와주는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도통진경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신선이 되려면 인간개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의 인간은 재리만 탐하고 사욕에 의해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 원한과 척을 사는 불온전한 존재이다. 이러한 선천세계의 인간으로는 후천세계를 열 수 없으므로, 인간개조가 되어야 한다.

인간개조는 인간이 본성을 찾아 어질고 착한 마음(仁善)을 행하여야 하고, 참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한 마음(一心)을 가져야 한다. 이는 곧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바른 도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행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24)</sup> 인간은 마음에서 뜻이 생기고, 뜻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마음이 참되어야 참다운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인간이 개조되는 데에는 지상신선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일심을 가져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한 마음을 갖지 않는데 원인이 있고,<sup>25)</sup> “진실로 한 마음을 간직하기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sup>26)</sup> 하여 일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한다.

셋째, 지상천국은 인간사회가 상극에서 상생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우리의 일은 남을 잘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sup>27)</sup>라 하여,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

23) 鄭大珍, “大巡思想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제1집 (大巡思想學術院, 1996), p. 5

24) 대순지침, p. 52.

25) 典經, 교법 제2장 5절, p. 234.

26) 典經, 교법 제2장 6절, p. 235.

다고 한다. 선천세계는 상극원리에 의해 경쟁하고 투쟁하는 데에서 원한이 쌓이고 자연을 정복하여 생태계가 파괴되었으며, 적대국을 공격하고자 엄청난 파괴력과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핵무기 등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상극원리에 의한 삶의 방식은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피해를 주어 모두가 진멸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남이 잘 되도록 하는 상생원리로 변화되어야 한다. 상생원리는 선천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면서도 후천개벽을 통한 지상천국의 실현에는 필수적인 생존원리이다. 선천세계는 상극원리가 지배하였으나, 후천세계에서는 상생의 원리에 의해 만물이 존재하고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후천세계로 전환시키려는 개벽을 위해서는 상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살펴 본 無自欺-精神開關과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는 인간이 최고의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無自欺-精神開關과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는 마음을 수양하여 진실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최고 수준의 인격을 도야하고 진실무망(眞實無妄)하여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며,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참된 일만 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無自欺이며 地上神仙實現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상천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세계개벽은 인간의 완성을 의미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우주의 구성요소인 천지인 중에서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이지만, 선천세계의 인간은 결함이 많으므로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 양심대로 행동하여 지상신선과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변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지상천국은 증산의 강세와 그 권능에 의한 삼계(天地人)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개벽공사에 의해 가능하다. 이를 대순사상에서는 천지공사라고도 하는데, 선천세계를 후천세계로 대변혁을 일으키는 것이 천지공사이다. 천지공사는 천지도수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선천세계는 음과 양이 균형을 잃어 상극이 지배하는 억음존양(抑陰尊陽)의 세계이다. 본래 천지도수는 모두가 일음일양(一陰一陽)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선천세계는 음양이 고르지 못하여 음양의 불균형으로 세상이 참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천지공사는 음양을 균형 있게 바로 잡는 정음정양(正陰正陽)의 작업이다. 정

음정양은 인간은 물론 우주를 구성하는 천지간에도 적용된다. 건곤(乾坤)이 각기 지닌 음양은 바른 덕으로서, 음양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활동이 정대(正大)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지의 덕과 교감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천지공사는 정음정양에 의한 음양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 VI. 結 論

이상으로 지상천국건설-세계개혁을 고찰하였다. 지상천국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salvation)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다른 독특성이 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인간은 절대적 존재에 의해 재난, 불완전성, 불행으로부터 구제되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고대로부터 신과 대조적으로 인간은 죽음의 운명을 안고 있으며 악령들에 의해 재난과 불행을 겪게 된다고 믿었는데,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종교의 구원이다. 종교적 구원의 방법과 형태는 다양한데, 불교에서는 스스로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고, 윤회로부터 탈피하여 해탈하는 것을 구원으로 보고 있다.<sup>28)</sup> 기독교에서는 신이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시키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화육(incarnation)의 관념이 있다. 기독교에서는 종말론에 의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생명을 주신 하느님의 은총을 얻어야 불사불멸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만들지 않은 죽음을 영원히 사라지고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구원이라 할 수 있는 지상천국건설-세계개혁은 인류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완전한 상태의 이상세계를 뜻한다. 이러한 지상천국은 대순사상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목적인 無自欺-精神開闢과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가 이루어져야 건설될 수 있다. 대순사상의 목적은 전자가 실현하고자 하는 상태이고, 후자는 전자를 실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신

28) W. Richard Comstock, *Religion and Man*, 尹元徹 譯, 宗敎學(서울 : 展望社, 1983), pp. 204-205.

개혁이 이루어져야 무자기를 실현할 수 있고, 인간개조가 되어야 지상신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인 최고 목적인 지상천국은 세계개혁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지상천국은 인간의 완성을 전제로 한다. 인간이 진실한 수양을 하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양심대로 행동하는 진실무망(眞實無妄)의 인격완성을 강조한다. 이것이 정신개혁으로 무자기를 실현하는 것이며, 인간개조를 통해 지상신선이 되는 것이다. 선천세계의 인간이 고도의 인격을 완성하고 신선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지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결론적으로 지상천국의 이상세계는 인간의 완성이며, 종교적으로 윤리성의 실행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大巡眞理會要覽(서울 : 大巡眞理會敎務部, 1969).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서울 : 大巡眞理會出判部, 1984).
- 대순지침  
典經.
- 金樹澈, 道德과 倫理(서울 : 敎文社, 1987).
-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서울 : 경세원, 1996).
- 윤주병, 종교심리학(서울 : 서광사, 1986)
- 이광수, “초기 불교에서의 구원관과 변천”, 종교문화연구원 편, 구원이란 무엇인가(서울 : 도서출판窓, 1993)
- 李東植, “東洋思想和 西洋思想의 만남,” 道原 柳承國博士 華甲紀念 論文集 : 東方思想論巧(서울 : 鐘路書籍, 1983)
- 朴昇植,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의 價値,” 大巡思想論叢, 제2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 朴昇植, “道通眞境의 宗教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제5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 朴昇植, “大巡思想의 信條 : 安心·安身”, 大巡思想論叢, 제7집(大巡思想學術院, 2000).
- 朴昇植, “誠思想和 修道” 大巡思想論叢, 제9집(大巡思想學術院, 2000).
- 朴昇植, “敬思想 研究” 大巡思想論叢, 제10집(大巡思想學術院, 2000).
- 朴昇植, 大巡思想의 信과 信念體系“, 大巡思想論叢, 제11집(大巡思想學術院, 2001).
- 朴昇植, “無自欺-精神開關에 관한 연구”, 大巡思想論叢, 제13집(大巡思想學術院, 2001).
- 朴昇植, “大巡思想의 人間改造”, 大巡思想論叢, 제14집(2002)
- 李載昌·역정·월포라 라후라 外, 現代社會와 佛敎(서울: 한길사, 1981)
- 蘇興烈, “과학적 철학의 인간개념,” 申午鉉, 人間의 本質(서울 : 螢雪出版社, 1989).

柳承國, 東洋哲學研究(서울 : 東方學術研究院, 1988).

鄭大珍, “道通眞境의 理解”, 大巡思想論叢, 제5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鄭大珍, “大巡思想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제1집 (大巡思想學術院, 1996)

平川 彰, 印度佛敎史 : 上卷(春秋社, 1967), 이호근 옮김, 인도불교의 역사 (서울 : 민족사, 1994).

최혜영,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본 인간과 세계의 완성”, 종교문화연구원 편, 구원이란 무엇인가(서울 : 도서출판窓, 1993).

N. Smart, “Soteriology”,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13(1987).